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통해 볼 때 일제 36년을 비롯해서 고난과 한에 맺힌 역사속에서도 우리나라의 남북 분단만큼 비애스러운 일은 없었다고 한다. 수만의 이산가족의 애절한 사연과 아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최대의 비극인 동족상잔의 6·25가 바로 우리 조국의 분단에서 비롯되었으며 진정한 의미의 자주적인 우리민족이 될 수 없는 뼈아픈 현실도 바로 국토와 민족이 두동강이 난데 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북통일은 우리민족의 염원과 숙원이며 동시에 우리민족의 오늘의 최대 최우선의 역사적 과제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 4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족통일을 애타게 소원하는 기도를 말로만 했을 뿐 구체적인 노력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통해 볼 때 일제 36년을 비롯해서 고난과 한에 맺힌 역사속에서도 우리나라의 남북 분단만큼 비애스러운 일은 없었다고 한다. 수만의 이산가족의 애절한 사연과 아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최대의 비극인 동족상잔의 6·25가 바로 우리 조국의 분단에서 비롯되었으며 진정한 의미의 자주적인 우리민족이 될 수 없는 뼈아픈 현실도 바로 국토와 민족이 두동강이 난데 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북통일은 우리민족의 염원과 숙원이며 동시에 우리민족의 오늘의 최대 최우선의 역사적 과제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 4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족통일을 애타게 소원하는 기도를 말로만 했을 뿐 구체적인 노력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질화 극복 위해 평화교육하자"

5월 86-6-1

—민족 통일을 위해 Y가 할 일은 무엇인가?—

늦은 감이 있으나 6·25 36주년을 맞이하여 민족위기라는 현실집에서 Y가 이 민족의 사는 길로서의 민족통일의 과제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민족통일의 이정표는 무엇보다 7·4 공동성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 세가지로 되어 있다. ①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②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③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사람과 평화에 기초하고 있는 기독교여성운동체로서의 Y의 민족통일을 위한 과제는 이같이 자주

적이며 평화적으로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서 민족의 대단합을 이루겠다는, 무엇보다 민족의 주체성과 통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이 7·4 공동성명의 정신의 성취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첫째 과제는 41년간의 다른 체제와 가치관과 생활양식에서 굳어진 이질화의 현상을 극복하는 노력이다. 우리는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서로간에 가장 미워하고 모르는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비극이 아닐수 없으며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스포츠경기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Y는 적극적인 평화교육을 통해, 편협된 반공교육으로 왜곡된 상황에 변화를 가져와야 하며 그것은 동질성회복을 위한 작은 노

력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둘째로 민족통일의 선행과제로서 철저한 민주화 작업이다. 자유와 평등과 자율을 존중하는 민주이념이 생활화되고 인간의 기본권리가 보장되며 다양성이 허용되는 사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흑백논리로 사람의 주의주장을 정죄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도 민주이념이 유보되어서는 안되며 그러한 상황에서 민주적인 통일성취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는 사회정의 실현이다. 형평의 원리에 입각한 경제적, 사회적 균등한 혜택으로 빈곤과 인간차별이 없는 사회를 이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Y는 특히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웃과 연대의식을 갖고 그들의 현실을 사회여론화함으로써 정책변화를 일으켜 모든 국민이 고르게 잘사는 사회로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금년은 국제『평화의 해』이다. 동북아의 긴장완화가 세계평화의 열쇠이며 우리 민족의 사는 길이기도 하므로 우리민족의 통일의 과제는 중요한 것을 상기하다.